

공현진 연안 바다목장 사업 본격추진

지난 9일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원 투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해역에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와 바다숲 등 서식장을 조성하는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종국 군수, 문명호 군의장, 공현진 어촌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수산자원단은 사업추진의 방향으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일반인들의 체험관광이 가능한 해상 어로 및 유어낚시터 조성 △일반인들이 체

험할 수 있는 바다숲 조성 △방파제를 활용한 낚시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운영전략으로 어촌계 중심의 자율관리 공동체가 주체가 돼 운영하고, 고성군 해양수산과장과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및 학자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류 어종은 어업인들과 협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단 관계자는 "바다목장사업의 경우 통영해역에 시설한 결과 연간 어업소득이 1.28배 증가했으며, 여수바다는 2.71배의 높은 어업소득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다

숲의 경우 제주 해역에서 1.27배의 어업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마치고, 내년 선정 신청 및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현재 전국 1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곳은 고성, 인천, 당진, 서산, 보령 등 5개 지역이다.

원광연 기자



지난 9일 고성군청 상황실에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북방대합·개량조개 50만 마리 방류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첫 생산 품종 ... 공현진어촌계 마을어장에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는 동해안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속초·고성 연안어장에 북방대합과 개량조개 50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

강원도의 바다목장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무상방류 사업은 지난 5월 31일 개소한 오봉리 소재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의 첫 생산 품종이다.

이번에 방류되는 북방대합과 개량조개는 고부가가치 연안 어종으로 일정기간의 성숙을 거쳐 2013년부터는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지역은 공현진어촌계 마을

어장에 북방대합 15만마리, 개량조개 20만마리 등 총 35만마리를 방류하고, 속초지역은 청초어촌계 마을어장에 총 15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에 따라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연안어장내 수산자원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는 앞으로 동해안에서 최근 사라져 가는 톱지, 강도다리, 해삼, 대구, 명태, 털게, 새우류 등 한해성 토속어종들을 지속적으로 시험 생산해 연간 1천만마리 이상의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한형교 수산자원센터 소장은 "이번 무상 방류를 시작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및 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한다면 동해안의 어족자원은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방대합= 진판새목 개량조개과의 이매패류, 황갈색의 두껍고 무거운 대형종이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동해 북부에 서식하며 맛이 좋고 풍파가 심한 동해안 해역에 적합한 품종이다.

개량조개= 진판새목 개량조개과의 이매패류, 패각은 중형으로 삼각형에 가깝다. 살의 색은 붉은 굴색이고 수컷이 더 진하다. 우리나라에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조간대에서 수심 10m의 모래, 진흙에 서식한다. 최광호 기자

농업인 건강회복 운동 실시

고성군농기센터 '근골격계 질환' 교육



고성군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교육 모습.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과도한 농사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정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불편한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근육, 신경, 혈관, 관절, 인대 등에 손상이 오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2리 마을회관에서 11월은 매주 화요일, 12월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등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경동대학교 박경영 교

수를 초빙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탄력밴드를 이용해 관절구축 및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절운동과 스트레칭, 상지근력운동, 몸통근력운동, 하지근력운동 등 근력강화운동이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일로 만성적인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농업인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건강회복운동을 실시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농협중앙회 군지부 향토장학금 기탁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박상기)는 지난 10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향토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최광호 기자